

승려노후복지 시작

제186회 임시총회, 승려복지법 등 6개 중법 제·개정

조계종 제186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이 통과돼 조계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는 3월 8~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민족문화수호 동참 108배 정진 후 개원했다가, '불기2554년 중앙총무기관 및 지역특별분당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 후 10일 속개·폐회했다.

임시회 동안 중앙총회는 '승려복지법'과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하고 '총무원법' '교육법' '총무원법' '법계법' 등을 개정했다.

승려복지법은 승려복지에 기반이 되는 법으로 종단 소속 만 65세 이상의 승려의 거주 및 의료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은 조계종 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어 승려복지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교구복지회를 두어 이를 관리키로 했다. 재원은 매월 약 1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 외에 총무원과 교구본·말사의 부담금, 목적 부담금, 기부금 등으로 지원해 국민연금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납

18~59세 조계종 승려는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수행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조계종 스님 종결계신고를 필한 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으로 차액은 승려복지회가 부담한다. 세부 수급액과 기준은 종령을 통해 마련키로 했으며 수행연급 지급 등 본격적인 시행은 승려복지법 공포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두기로 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사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돼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교육법'도 개정돼 15세 이상인 자도 행사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역의 종단적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역 관할교구에 지역사찰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한 '총무원법', 총무원의 행정지체를 현실적으로 개편한 '총무원법', 법계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 '법계법'도 개정됐다.

하지만 조계종 스님이 설립한 법안을 관리하는 법인법 제정안은 논란이 예상돼 선학원 등 각 법인의 의견을 더 수렴키로 해 차기 총회에 이월됐다.

총회는 원로의원 후보자로 정관·혜산·인환 스님을 추천하고 원로의원 중하 스님의 대종사 특별전형 심의를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법규위원회에 몽산, 종성, 법의, 현봉 스님, 재심호계위원회에 보원 스님, 조심호계위원회에 효용 스님, 소청심사위원회에 범준 스님,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 해오 스님, 인사심의를 위한특별위원회에 종호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종헌중법의 입법 미비를 바로잡기 위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종헌중법 제개정특위 위원장은 범안 스님, 위원은 만당 월공 주경 심우 정법 덕문 지현 법해 진화 상덕 스님이 선출됐다.

종헌중법제개정특위는 15대 중앙총회 전반기동안 △종헌 개정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한 개정안 마련 △종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중앙총회 운영에 대한 개정안 마련 △승려법, 사찰법, 법인법, 징계법 등 제중법에 대한 연구검토 및 제개정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활동한다.

또, 중앙총회 재무분과위원회에 '홍천사문제정상화살위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백운·월운 스님 면직 부당

서울중앙지법, 강원교구총무원장 등 면직 효력 정지

대교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이 총무원장 탄핵안 주도 등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교구총무원장을 면직함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총무원장에게 총무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면직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 판결 선고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월 15일 판결했다.

조종섭 기자

조계종, 화쟁 리더 양성한다

조계종 화쟁위 등, 화쟁리더십아카데미 개강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원장 윤여준)과 '화쟁리더십아카데미'를 개강한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는 4월 11일~6월 27일 10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강의와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평화재

단 이사장 범문 스님,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 모집 대상은 30세 이상이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40만원. leadership@peacefoundation.or.kr (02)6925-0522

조종섭 기자

“좋은 성과로 결실 맺겠다”

10·27 법안, 심의위… 동덕빌딩 9층에 새 보급자리

10·27 법안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는 동덕빌딩에 새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3월 10일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부지런히 활동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3000여 명 한 목소리 “자정과 쇄신으로” ‘민족문화수호 자성과 쇄신 결사 직할교구 결의대회’가 3월 11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승 스님,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공동위원장 영담 스님 등 400여 스님들과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의지를 다졌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5대결사 점검⑥ 평화결사

평화결사 ‘사업’ 만으로는 ‘요원’

국민들의 일상의 고통과

삶을 보듬는 해법 제시해야

5대결사 중 평화결사는 종교평화를 통한 우리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도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종단이 추진하는 평화결사의 주요 내용이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밝힌 평화결사는 ▷종교간 대화 및 교류활동 ▷남과 북,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지원 및 교류활동) ▷사회문제 불교적 대안창출 활동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거나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열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더구나 이웃종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눈에는 보이는 ‘사업’만으로 평화결사 완성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그동안 종단은 종교평화와 관련해 재가불자들보다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평화결사에는 국민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불교적 평화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영국 연경사문화평화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웃종교와 대등한 위상과 신뢰를 갖춰야 평화를 말할 수 있다. 종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평화 결사를 위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선행돼야하며 도덕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노력과 실천이 불교의 쇄신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질 때 ‘평화결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종단은 현재 100일 결사 후 평화결사를 포함한 5대 결사의 세부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평화결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가정, 사찰, 교구본사별 실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가정에서의 평화결사에서는 부부간 존중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찰에서의 평화결사는 평화에 어울리는 사찰환경 조성과 어린이를 위한 평화학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구본사에서 평화결사로 종교연대 활동을 위한 평화위원회 조직,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이웃종교와 완대 등이 검토 중이다.

조계종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실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김밥 먹으며 밤늦도록 했는데...

승적 말소자 구제 등 정책질의서 열띤 토론

제186회 임시총회는 결산감사와 정책질의를 어느 때와 달리 충실하게 수렴했다. 특히 3월 10일 오전 10시 속개된 회의는 오후 10시경 폐회 때까지 활발한 질의와 정책 개정이 진행됐다. 특히 정책질의에서는 분한신고와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질의가 세 시간 넘게 진행됐다. 열의를 넘친 정책 개정 과정에서 일부 총회의원들 간의 고성어 오가기도 했다.

시 이후 종단 소속 승려들이 대거 승적이 말소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대안 마련 추구가 이어졌다.

법안 스님은 “출가자수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2500여 명이 넘는 스님의 승적을 말소한 것은 지나치다. 국가의 주민등록법과 같이 미필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특별분한신고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상시심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이미 3회에 걸쳐 공고를 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총무원은 이미 법이 정해진 대로 승적말소를 진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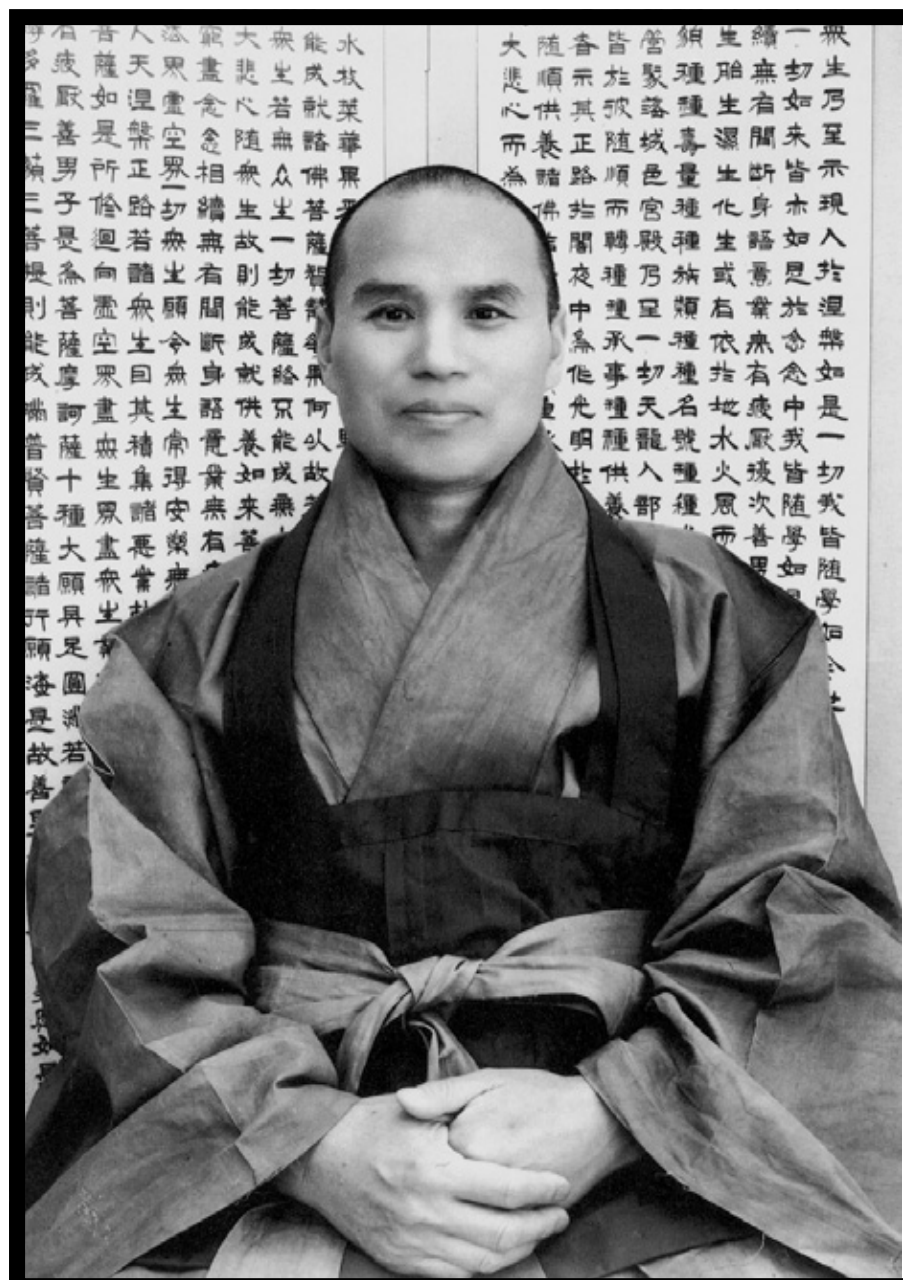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무부 질의에서는 생수사업과 상조사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총회의원들이 활발히 정책질의를 하고 김밥 등을 먹어가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보인 반면, 집행부는 불성실한 대답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열의로 총회의원 스님들 간 폭언이 오가는 상황도 두 차례나 벌어졌다.

‘승려복지법’ 제정안을 논의하던 중 의사 진행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오심·종호 스님은 정회 후 회의장 밖에서 고성어 오가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

2012년은 우리 시대의 부처 퇴옹성철(1912~199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가 시작될 무렵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거쳐 격동의 현대 시기를 살다가신 성철스님의 100년은 20세기 한국 역사와 한국불교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20세기 한국 역사 속 인물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한국의 사상이 성철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21세기 한국 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포럼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을 3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2011년 주제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

【 제1차 포럼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

- 일시 | 불기 2555(2011)년 3월 24일(목) 오후 1시~5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
- 주최 | 성철스님문도회, 불교신문사
- 주관 | (제)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 진행 (1부) 입재식 1:00~1:50

(2부) 학술포럼 2:00~5:00

●주제: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 2:00 기조강연. 불교교육과 한국 사회의 미래 : 성철스님의 지도방식을 중심으로 / 김희옥 동국대 총장
- 3:00 발제 1. 현대 한국 사회와 바람직한 승가성 / 조성택 고려대 교수
- 4:00 발제 2.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화 / 성태용 건국대 교수

【 2011년 학술포럼 일정과 주제 】

2011년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

3월 24일(목) |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기조강연 : 불교교육과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제 1 : 현대 한국 사회와 바람직한 승가성
발제 2 :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화

5월 26일(목) | “현대 한국 사회와 퇴옹성철”
기조강연 : 퇴옹성철의 대중지도와 수행사상
발제 1 : 대중언론에 나타난 성철 신드롬
발제 2 : 현대 한국 사회에 투영된 퇴옹의 삶과 사상

9월 22일(목) |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
기조강연 : 근대 불교 100년 속에 퇴옹성철의 위상과 역할
발제 1 : 근대 한국불교의 선봉과 퇴옹성철의 수행
발제 2 : 대립과 갈등의 근대사와 종교법문의 의의

11월 24일(목) | “현대 한국 종교인물로서의 퇴옹성철”
기조강연 : 현대 한국 종교인물로서 퇴옹성철
발제 1 : 근대적 종교지형과 퇴옹성철의 역할
발제 2 : 퇴옹성철의 사회학적 접근

| 성철스님문도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아트빌딩 1232호 전화 02) 2198-5100, kosa21@hanmail.net